

聖句

청년이 무엇으로 그
영생을 깨끗하게 하리인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國立國會圖書館

28.1.18 寄贈
支那圖書館

政治會議에 印度參加問題와
西歐陣營의 態度

아시아問題에 關係가 적은 라
틴·아메리카諸國의 支持에
받지 못하고 밀립까지도 印度參
加를 贊成한다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美國의 地位가 問題로 浮上한다.
결국 西歐陣營의 태도가
美英하다는 것은 유감이다. 韓
國의 對印政策은 五十二個國이 參
加하였는데 이제 休戰後의 韓
國問題를 議論하는 자리에도
처음같은 結束을 바라기는 어
려지마는 近日의 西歐諸國 특
히 英國의 태도가 變함은 너
머 지나친바가 있다고 보겠다
問題는 會議에서 國連機關과

共産側의 쌍방의 對座의 方式
을 취할가 中立的立場에 있는
나라를 參加시켜서 國會議員
할까하는 形式的問題가 아니라
共産側으로 加擔하기 쉬운 인
도를 參加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
美國의 意圖인데 어느 方式을
취하든지 政治會議自體는 多數
決로 定하는 것이 아니요 一國
반대해도 如何한 解決策도 成
立이 안되는 것으로 結局 어떤 나
가 參加하든지 何等關係가 있
는 것이요 總會에서 美國이 國連加入
六十個國의 三分之二의 支持를
받는 것도 어렵지 아니한 문제라
하겠지만 韓國문제에 있어서
西歐諸國陣營의 變거름이 많지
아니하는 것은 美國으로서 불쾌
한 일이지요 따라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수 있다.

靑少年으로부터 五十年

日本Y同盟五十週年紀念式

富士山麓東山莊에서

日本YMCA는 一九〇三年에
市Y의 同盟과 學Y의 同盟이
합하여 日本基督教靑年同盟이
성립된지 五十年이 되었으므로
동맹에서는 지난 八月二十三
四日(兩日)에 富士山麓인 東
山湖 맑은 물들 눈앞에 바라

보고 서늘한 樹林속에 있는 御
殿場 東山莊에서 "그러나 오늘
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감당
해야 하리니" (누가十三30)
하는 標語로 紀念式典이 열리
게 되었다.
이 모임을 이렇게 고요한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 25 2623 番
編集人 吳 九 台
發行 人 吳 九 台
主 筆 田 榮 澤



社說

民族의 魂은 어디에 있나
(教會指導者의 責任)

대한민국의 魂은 어디에 있나
日僑胞들이 때때로 마지않게 되
는 국가적으로 의의있는 행사
에 있어서 어찌해서 좀더
거운 성의와 애국심을 발노하
지 못하는가 하고 의문을 발하
지 않을 수 없다. 과거 二개월동안
을 도라볼지라도 적어도 세번
은 애국적 기념행사가 있었
다. 그것은 六二五사변 三주년
기념, 후전협정의 조인, 그리고
또 일본의 항복과 아울러 四
十年동안이나 계속되는 일본의
기반에서 벗어난 역사적 해방
기념일이다. 이러한 기회가 있
을 때마다 공산주의자의 열렬
한 선전행사를 거행함으로써

일본문과 영문(英文)을 물론
하고 그들의 행사에 관한 보
도는 크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
그 실정인가 한다.
그들의 축하행사라는 것은 온
히 폭행과 고함과 무질서한 것
으로 나타나나니만큼 그들은
물론 平和과 관자로서 인정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
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세
계에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한 국가를
가졌으니만큼 우리의 국가적
기쁨과 서러움을 널리 세계에
알리지 아니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축하행사나
모든 모도가 다 모스근바나
북경으로부터의 명령과 지시를

웃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외국
의 지배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
는 우리의 모든 애국적 행사에
있어서 모다 뜨거운 성의와
氣血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우리 교인들과 또 그 지도
자들은 모든 애국적 행사를 지
도하는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힘써야 할 것이다 예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
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세
상의 소금이다" 하셨다.
이것은 모든 좋은 일 또 모든
좋은 일을 해 나아가는데 있
어서 우리는 언제나 그 지도
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국을 멀리
떠나서 이와같이 외국외인사이
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우



在日大韓基督教

青年局과 勉育合同 夏期修養會

재일대한기독교총회 청년국에
서는 기보한바와 같이 지난
十七일부터 일주간 비파호(琵琶湖)에서
夏期修養會를 개최하였다.



在日大韓基督教青年局과 勉育合同 夏期修養會

총회산하 일본전국 4지방회
에서 참가한 남여청년은 五十
여명이었는데 그중 여자회원이
반수였다.

전체 재일거류동포들의 생활
실태에 비추어 이번 집회에는
三十명정수의 참석자를 예상하
였으나 관서지방에서 적극적으
로 금번 회합은 청년의 집회
다움게 하자는 의도에서 노력
한결과 관동지방에서 먼거리이
도 불구하고 十여명이 참가한
결과 숫자적으로는 좋은 결과
를 이루었다.

四일간의 무료진행에 있어서
도 해방후 八年간에 가장 조
직적이었고 내용적은 회합이었
다.

주제에는 「그리스도청년의
생활」이라는 막연스러운뜻
하여도 의미있는것을 내어놓고
다시 三小題를 두고 성서적
입장과 인간면을 노골적으로
표면화 시켜가면서 건설적으로
토의는 전개되었다.

第一일은 동지사대학(同志社
大學) 魚木교수의 主題강연이
있었는데 「현대 그리스도청년의
과제」는 위기에 직면한 정치
경제, 사상, 문화를 구하는 일
에 있다고 전제한 후 그리스도
청년만이 이 일을 할수있다고
는것을 「現代教會의課題」라는
저서를 최근에 발표한 저자인
魚木박사는 원근 여행에 피곤

美國의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타紙의 社說은 「공산주의자
는 美國이 제공한 東獨經濟의
食糧공급을 거절함으로써 그를
이 없애나 殘虐한 方法으로
東獨國民들을 抑壓하고있는가
여지없이 폭로하였다.」고 다
음과같이 말하고있다.

東獨의 共產主義狂信者들은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있다.
千八百萬의 人口를 소유하고있
는 이 地域을 一個의 強國으로
變容케 하려는 소련의 數
年間에 걸친 노력이 이루어져서
美、英、佛、三國地區에있는
獨逸이 進步된 活動과 부흥을
이루고있는 반면에 소련地區에

한 청년들이 밤이 깊어가는것
도 잊어버리고는 타 일러 주
어 큰 감명을 주었다.

第二일은 아침기도회가 六時
半에 있었으나 半時間 부터
노전 기도회장에 모여 고요히
은혜를 기도했다.
오전十時부터는 이번 회합의
중심인 성서연구가 시작되었는
데 배기할강도사의 인도로 「고
린도전서」에 나타난 바울사도의
교회관을 한시간반이나 설명
하였다 그는 교회밖에는 구원
이 없다는것을 명확히 설명하
였다.

十一時부터는 현재청년들의

中共治下的基督教

共產黨이 支配하는 新은 中
國에 果然 宗教가 존재할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의 수수께
끼다. 唯物史觀의 中共과 唯神
論의 宗教가 理論上 敵對視되
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기때
문이다. 그런데 大陸에서부터
香港으로 나온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中共地區에 宗教는
들립없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變質된 宗教觀 結論이
나온다. 더욱 분명히 말하자면
共產地區의 宗教는 政治色이
濃厚하여 民衆動員의 一組織으
로서의 役割을하고있으며 따라
서 敎義의面에 있어서는 新民

主義理論과 모순되지않도록
되어있다는것이다.
中共地區에서는 지난六月三日
全中國各地의 佛敎徒代表百二十
一名이 北京의 廣濟寺에 모여
中國佛敎徒協會를 組織하였는데
同會의 發起趣旨書를 보면 그
政治色이 가장 明白히 나타나
있다.

「우리들은 佛敎徒로 하여금
封建經濟의 속박으로부터 離脫
케한것과 反革命運動의 진압과
反動 宗教抹消의 成功을 기圖
한다. 우리들은 또한 抗米援朝
의 偉大인 運動을 激發하지만
이들 一切를 統率하여 指導하

는 毛主席과 中央人民政府에
感謝하는 바이다」

이것으로서 명백해 져가니와
毛澤東은 宗教보다 上位에있는
現存하는 신이다. 또한 이 趣
旨書에는 명백히 大規模로 國
內建設을 開始하고 世界의 平
和運動을 發展시키기위하여 中
國佛敎徒의 組織이 필요하게되
었다는것을 말하고있다. 이것은
「政府에 協力하는 宗教」를
의미하고 그 組織力을 이용하
여 政策推進을 도모자는 中共
의 政策이 명백히 나타나있다
그러므로 暫定憲法인 共同綱領
第五條에있는 宗教와 信仰의
자유도 實은 이와같은 宗教와
信仰을 가르키고있으며 中共이
政權을 잡은지 約一年만인 一
九五〇年九月에는 全國基督教徒
에서 「中國基督教의 新中國建設

中에 있어서의 노력의 결」이
란 宣言을 人民日報紙上에 發
表하여 이것으로부터 中共治下
의 基督教는 急速도로 變質하
게되었다. 이와同時에 이 宣言
에 대한 著名運動이 中國各地
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中國의
基督教에 決定的인 영향을 준
것은 一九五〇年十二月에 突然
히 行해진 美國의 在 中國資產
의 凍結이었다. 中共도 이에
대하여 直時 在 中國資產의
凍結을 行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外國의 援助로서 유지하여온
많은 教會도 「다이어」土地改革
을 基盤으로하여 工業的發展을
도모하는 中共經濟와 結合하
지않으면 안되게되었다. 따라서
中共政府에 「歸依」가 一層 日
推進된 결과가 되어 教會에는
毛澤東의 肖像이 걸리고 敎人

東獨에서 지금 식량이 결핍하고 있다 이것은 속일수 없는 사실이나 小麥粉二二 톤도 큰 牛乳小罐四個 건조구리피스

苦惱하는 共產主義

한 그의 표현생활의 고민은
흔들리는 표현생활면에서 나중
남씨의 간증이 있었는데 심각

오후 분단회의와 밤에 열린 종합토의에 까지 논의되었으나 역시 성서적 교회관을 확립한 이 그리스도청년의 양면한 모습과 제라는 점에 귀착되어 재입일은 마쳤다.

第三日은 아츰 일찍부터 개
인적 접촉이 철폐하여지며 한
제도 공부하였고 쟁투송파
탁 유—모아도 자연스러웠다.
오전十時 성경공부시간에 이
이하감도사는 그리스도교와 사

회생할 사이에	노여진	율법의
은	抗美援朝의	運動에
反美데모에도	參加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當然코	無色이어야
宗敎에도	붉은	색이
	배이	

게 되었지만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불교 그 자체도 차차中共의「新民主主義理論」의 擁護의 責을 負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基督教에서도

自養——外國의 經濟的인 援助을 斷絶할 時에
自治——外國人敎師의 伝道에 依持하지 않고 西歐의 制度、義式、規則等을 中國의 云々

에 符合하도록 改正할것。
自 依一 道道할는 西歐神學의
精神에서 離脫하여 現實逃避
의 傾向을 一掃하고서 中國
자신의 神學體系를 세워야 한다

의
抵抗
에

는 共產主義

正式의 起訴狀이 없어도 全國
民을 노역의 刑까지도 언도할
수가 있다.

참다 우부리드 東獨閩首相은
공정정부의 國民으로 하여금 西

위대한 대한 강의를 하여 현대 세계계에 문제되고 있는 을의 재인식을 강조하였다 이에 뒤 따라 十一時부터 박은주씨는 「기독교는 사회과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발제(發題)하여 많은 흥미와 관심을 이르켰다.

이 문제에 관심이 적은 고

대학 교 학생들로 조직된 A B C
단에서는 「기독교 학생 생활을」

友邦三十餘

申國會議長

申國會議長の講演會開催

三個月間の 世界旅行을
世界聯邦會議開催

지난 八月二十二일부터 二十九일까지, 뮌헨의首都「크」인하-겐」에서 第五回世界聯邦運動世界大會 및 第三回世界聯邦國會議員會議가 개최되었다。國連憲章第十八章百九條에 依한 同憲章의 改正은 一九五五年에 追頭하였을으로 이것을 主要議題로한 同大會는 全世界의 目을 集中하였다 특히 아세아 및 우리韓國의 重大關心事인 「後進地域開發問題」 「冷戰의 停止와 平和促進의 方策」 등 여러 問題는 議題에 올랐다。戰爭을 欲하는 全世界의 많은 平和를 建設하려는 世界政府야말로 眞正의 人類가 오랜歷史를 통하여 希求하는 理想郷이며, 歷史의 正當의인 志를이과 하였다。

고 공산주의자들은 관심을 할
게 되었다.

우부리드醫藥國家는 前번 六
月十七日의 勅令이 施行되자마

자란반의 조지를 취할 의향
을 분명히 하였으나 東國國民
들의 저항은依然히 계속하고 있다
이結果로 우루루의 無任과
포선이 오래동안 虛偽의 약속
을 하여오던 자유선거가 이부
어질지도 모른다.

리는 어떻게 할가」하는 문제
를 중심으로 토의하였는데「우
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학
생에 세움을 받은자니 학생생
활에 있어서는 학과를 비롯하
여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자
는 함의를 본것이다.

발에는 수양회의 특의한 의
의와 인상을 남게하는 캠페인

어가 세시간이나 열렸다.
(以下略)

國을訪問한

의講演會開催

世界聯邦會議開催

講演會를 개최하였다.
民國副團長 裴東湖氏의 司會
로 愛國歌합창과 殉國烈士에
대한 默念이 있은 다음 中總
本部議長 金光男氏의 人事말씀
이 있었고 이어 婦人會代表呂
부더의 花環贈呈이 있었다.
英國 엘리자베스女王戴冠式에
參席하기 위하여 지난 五月十日
日 韓國을 떠나 同式에 參度
한후 돌아오는 길에 우리韓國
戰爭에 直接參加한 十六個國
및 其外 物質的으로 많은 接
助를 애끼까지 아니한 여러
國家를 방문하여 韓國國民을
代表하는 國會議長의 자격으로
感謝의 뜻을表하고 韓國의
慶正한 平和의 길을力說한
申議長은 요지 다음과 같은 演
演을 하였다.

可決하였는대 四時制 英國政府
로부디 韓國會議長앞으로 女
王禮遇式에 參席하도록 招待狀
을發給으로 하는李大統領과

相讓(相讓)에	이	兩任(兩任)務(務)를	兼任
하	五月十八日	韓國(韓國)을	되나
게	있	英國(英國)에	가
國(國)을	經由(經由)하여	美國政府代表者	
에게	감사의	의(의)를	表(表)하였으
며	美國에서	가장	자주
이	지나	韓國(韓國)을	방문(방문)한

로(出)트(會)氏(會)口。
英國에서는 五月三十日 早(日)
國(會)으로서 數(日)間 相(持)世(世)
每日(日)이 延(延)會(會)에 延(延)하(하)여
六月五日(日) 아침(晨)에는 英(英)國(國)
서(會)는 英(英)國(國)으로 英(英)國(國)
자(女)王(王)을 만나 우리(我)韓(韓)
國(國)의 人(人)의 物(物)資(資)의 利(利)
益(益)을 早(早)로 協(協)力(力)하여 英(英)
國(國)의 利(利)益(益)을 韓(韓)國(國)의 利(利)

表하여 謝意를 表하고 약수하 였다.	뜻깊은 것에서 英國의 왕을 만나고 명랑한 한국의 목소리 를 들리게 한것은 아마 韓國 및 英國 의 교섭 以來 최초의 일일 것이다
---------------------------------	--

라고 말하였다.

六月八日 英國을 떠난 申儀
長은 愛蘭을 방문하고 다시
론돈을 거쳐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西獨, 포르란트, 벨기
아, 룩셈부르크, 불란스, 스위스
伊太利, 히람, 달키, 에티오피
아, 파키스탄, 印度, 인도네시아
比律賓, 臺灣, 台灣 등 二十餘
國을 방문하고 지난 八月二十
四日 日本羽田飛行場에 到着하
였는것이다. 방문한 각국을
하여 共通된 점은 「그들의
길에 대한 精力이 왕성했다」
고 말하며 우리韓國의 유일하
살길을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며
爭을 싫어하는 民族이다. 그러
나 韓國은 假令 平和를 원하
지않으며 진정한 통일, 평화
를 希求한다. 우리는 全世界
民에게 「우리들에게 진정한
화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紀念禮拜會

日本 Y 五十주년 紀念式을 지낸날 밤七時에 다시 모여서 현상 論文당선자의 발언을 중심하여 앞으로 오고 五十년에 나아갈 길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는데 여러사람의 말을 종합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앞으로 일본 Y는 전과같이 會館만 지키거나 회관안에만 머물러 있을것이 아니라 現時代에 대비하여 밖으로 나가, 社會를 이끌어 버리고 精神의空虛를 없애고 올리고 혹은 값싼 오락과 학예 홀러가는 청소년을 붙잡고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強力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Y M O A가 오락이나 스포츠의 장소를 제공하라는데 고치거나 말로만 떠들것이나 아니라 저들에게 實生活로 이 진리를 보여주고 따뜻한 사랑을 주자. 특히 앞으로 선배들을 靑少年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운동을하자.

産業 Y 運動과 聖經輪讀會를 힘 쓰자等等.

이른날인 日曜日에는 午前九時에 賀川豊彦氏의 說教로 紀念禮拜가 있었는데 氏는「死亡한 日本、경제적으로 心靈의 空虛를 구하고, 도도히 밀려오는 共產思想의 바람을 막으려면 基督教敎을 한갓 敎理로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된다. 기독교는 生命意識이요 生命運動이니「사람의 實行」運動을 하여야 된다.

Y의 지도자들이 그동안 수고 많이했으나 조국을 위하여 청년을 위하여 좀 더 관심을 하여야 된다고 권한다.

끝으로 이번의 五十주년 紀念式에는 그들이 조국을 근심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을 살려 보려는 열정이 넘치는것을 느꼈었다.

靈魂을 사랑하시는 예수

講壇 京都教會牧師 田永福

주의 약속은 어떤이든
대고 생각하는 것같이
대하여 아니라 오직
대하여 오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시나이다.

예수는 우리 생명의 생명의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현대
는 너무 물질생명의 구해
영이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의 생애에 관하여 영혼의
세계에 대하여 무관심하기
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
문제는 육신의 사는 길이 아
니라 영혼의 흥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온 천하를 주어도
바를 수 없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
시지 않고 속사람 곧 영혼을
찾으십니다. 예수는 부한자나
학식이 있고 현명한 자나 고
귀한 것을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거지, 병자
약한 여자들, 인간의 가치로
보아서 귀찮아진 귀신들린 자나
맹인, 문둥이, 중풍병자, 무식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어부, 세인들에게 악명을 받는
세리들을 상대로서 복음을 전
파하시고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님은 그때의 소위 유력한 종교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아시고 독사의
종류들이라고 회개하시면서 가
난한 무명의 한 여자의 믿을
을 크게 칭찬하시며 현행으로
잡힌 간음한 여자를 그대로
둘려 보내셨을 것입니다. 예수께는
의 자라는 문제로 삼지 않으시
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
고 구원코저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그
영혼 하나라도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예수의 사랑을 나타
낸 것입니다.

예수교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외모를 문제하지 않고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종교입니다.
성「어거스틴」은「나는 하나
님과 영혼만 생각한다」고 하
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
을 알고 영혼을 멸망에서 구
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信仰의 旗幟를 鮮明히 하라

主筆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려면
항상「신앙의 기지(旗幟)」를
鮮明케 하여야 한다.

첫째 우리는 세속적 행위를
벗어나서 부패하고 더러운 사
람들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
둘째는 불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마는 그렇지 않고 배가 불속에
들어 가면 까맣고 마는 것이다.
그와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남보다 이것 저것 일
을 하지 않는 이 세상의 좋지
못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아

를 탐지 못한 영혼을 따라가서
는 안된다.

세상은 대개 썩어지고 악한
것이 사실이다. 세상에 간혹
는 발을 딛는 좋은 사람도 있
지만 대개는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로 따라가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것이다. 옳은 것은 배우고
따라가기 어렵지만은 악하고 추
한 것은 물리고 배우기가 매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세속의
아름답지 못한 악과 허영의

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야 하였을 것이다.

영혼은 영원성을 가졌으니
잠깐있다가 없어지는 육체의
영혼으로써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참 만족은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만나와 영혼의 영원한 하나님
의 사랑을 먹고 영원한 구원
을 얻어서 영광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영혼의 만
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구할 것이

영혼이 벗어났을 때로 나갑
수 있는대로 예수님 앞에 나갑
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속 영
혼을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
하시려는 간절하신 목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입니다. 남
이 아지 못하는 영혼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슬피 울이 회개하고
사죄함을 받고 위로와 경감을
얻어 영원한 소망에 기뻐하시
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자를

이차대전 말기 소위「태평양
전쟁」때에 「싱가폴」에서 일
본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가진
학대를 받은 영국사람으로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하는
성경말씀을 따라서 자원에서
원수의 나라인 일본에 와서
살이나 낫이나 일본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에 끝까지
지내고 있는 자가 있다.

동경 구세군 본영에 있는 스
카틀랜드 사람인 구세군 참모
장「찰스·데비슨」대장이 곧
그 사람이요 나이는四十七세
이다.

바람이 어느새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곧 타
락하여 불쌍한 죄인이 되는 것
이다.

그런으로 죄는 언제나 멀리
하여야 된다. 옛날 요셉은 주
인의 아내에게 율지 못한 말로
유혹을 받았지만은 곧 물리치
고 몸을 깨끗하게 가지므로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었고 또
다시 열과 그밖에 세 청년은
왕이 내려준 사치하고 화려한
음식과 술을 거절하고 겸소하
고 절박한 생활에 만족하였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사치하고
경박하고 음탕하고 진심치 못
한 행동과 무릇 그러한 상습
을 피하고 떠나야 한다.

특별히 요세 일본에 있는

영혼이 벗어났을 때로 나갑
수 있는대로 예수님 앞에 나갑
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속 영
혼을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
하시려는 간절하신 목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입니다. 남
이 아지 못하는 영혼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슬피 울이 회개하고
사죄함을 받고 위로와 경감을
얻어 영원한 소망에 기뻐하시
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입니다.

「데비슨」대장은 복시 성
가를 구세군에서 근무하면서
「싱가폴」에서 「장군」지
대의 가난한 토민들을 구제하
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전
장이 터지자 일본군에 잡혀
한 일본군이 급격히 침입해내
려오므로 부인「보오」씨를
데리고 싱가포르 내로 피난하였
다.

그러나 싱가포르 시내도 일본비
행기의 폭격으로 위험해졌기 때
문에「싱가폴」항과 직전에 영
국부녀자들은 다 본국으로 철
귀하게 되었는데「데비슨」대장
형님남네는 이러한 작오가 필
요하다 요새는 새 문화 새
사상이라고 하고 소위「모던」
이라고 하여 청년의 마음을
현혹케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이다.

문화라는 것은 반드시 기계적
인 방면으로 자동차나 라디오
나 카메라 텔레비전이나 영화
나 비행기나 원자탄 수소탄
같은 것이나 양복과 양장하고
화장하여 몸을 단장하며 문화
주책과 정원으로 집을 꾸미는
것 따위만이 아니라 참 문화
의 골수는 그 정신적 방면 유
리 도덕적 방면이요 그중에도
현대문화의 원천이요 근본은
기독교인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문화의 적은
부분인 기계방면, 물질방면, 형

만은 남고 부인은「영부레스
음·자판」호로「오스트리아」로
피난하게 되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떠나서
도망하는三十여명 영국배를
향하여 일본 중공여기는 연속
적으로 폭격을 감행하므로 울
부짖는 부녀자들이 탄제로 여
러 배가 격침 되었다.

「보오」부인은 남편을 싱가
폴에 남기고 발길이 돌아서지
않는 것을 억지로 싱가포르를 떠
났었는데 이 때도 역시 일본
폭격기의 폭격을 받아서 만신
창이 되어 도망하였다.

그런데 인도양에도 일본 잠
수함이 출몰하므로 부인이 탄
이 배도 여러번 밟았으나 겨
우 난을 피하여 무사히 오스
트라리아에 피해간 것이었다.

그러나 부인은 그녀는 동안
에 여러번 폭격에 가슴이 불
러서 심한 심로의 남기지 병
이 나서 사랑하는 남편을 다
시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
나고 말았다.

그런데 한편 데비슨 대장
은 동년二月十五日에 싱가포르
무조건항복과 동시에 일본군에
게 포로가 되어 수용되었다.

그리하여 일본군안 포로생활에
일본군의 심한 학대로 파인
인간지옥의 생활을 하였다. 식
사도 변변히 주지 않고 대수롭
지 않은 일에도 까다로운 제한과

악방면만 따라가다가는 결국
내 정신과 지조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청년도 우리 옛사람
의 아름다운 화랑도(花郎道)의
정신 일본군이란 무사도의
정신이 필요하다. 당대의 정치
가요 많은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키는 교육자라도 그 사생
함이 깨끗치 못하면 그것은 아
모것도 아니다. 온이 돈과 이
에 눈이 어두어서 생활과 사
업을 결단내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기치를 선포
하게 하여야겠다. 나는 예수
를 따르는 사람이란 것을 세상에
밝게 드러내고 태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감지도 않고 불기
도 않는 회색으로 어둠에 빠지는
것은 가장 가증하고 위험한 것

압제를 하므로 기막히는 세월을 보냈다. 그중에는 일본군을 저주하면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 일본이 손을 들고 영군의 손에 싱가포르 해방이 되자 「데비드슨」 대좌는 심한 영양불량과 학대로 해골만 남고 심신이 극도로 피로하였었다. 게다가 고향인 「스카틀랜드」 「안단」 시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부인이 세상을 떠난 소식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에 어쩔줄을 모르며 전쟁의 죄악을 절름이 「끼고」 미워하게 되었다.

마침 이때에 대좌의 가슴에 한개갈이 번적인것은 마태복음 5장四十三절에 「네원수를 사랑하고 너의를 밭박하는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말씀이었다. 암흑의 밑바닥에 떠러진 대좌의 감감한 마음속에 이 말씀

은 큰 희망과 광명을 주었다. 전쟁과 원수를 저주하던 마음은 일반하여 원수인 일본으로 하여금 다시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힘 쓰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종전후에 곧 톨론구세군 만국본영에 가서 일본에 가기를 지원하여 동경으로 온 것이다. 대좌는 이 일을 승기고 베일중에 지냈으나 요세에 구세군본영에 알려지게 되었다. 대좌는 지금 북으로 북해도로 부터 남으로 「가고시마」 에 이르기까지 밤낮으로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골골하게 지내며 여러차례 영국과 미국에 가서 기부금을 모집해오고 말았다. 그는 월급의 반이 헌금을하고 있다고 한다.

祖國이 그리워



崔日順 (當十七才三重軒出生)

崔日順 (當十七才三重軒出生)이다.

예전 미국 시카고에서 어떤 노박에 가까운 유학생을 크게 짓고 개업식을 하는데 시험거리로 전도자 「무디」 선생을 청하였다고 한다. 무디는 과연 출석하여 「하나님 이 좋지 못한 유학생을 없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후에 과연 그 유학생은 문물 다치게 되었다고 한다. 또 미국 하리슨대장이 어떤 연회석상에 있을때에 친구들이 억지로 술을 권하므로 매번 사양하고 사절하다가 하도 여러번 권하니 나중에는 일어나서 술의 해독을 들어 일장 연설을 하였다고 한다. 「저는 정말 술을 싫어한다. 이런 정신이 못해본다」.

輕井澤女子聖經學院二年生 「저는 일본서 나서 자라서 본국은 보지도 못했어두 본국이 보고싶어요 네 그것을 그림다고 해요? 네 저는 본국이 그리워요 제 동무들은 저진 빨갱이야요 그래도는 저는 그런 아이들하구는 늘 지루 않아요 왜 일인지 싫어요 저는 이제 본국에 가서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저 좀 본국에 가게 해 주세요 이 다음에 이것은 처음보는 기사를 반기며 이야기하는 한 한국의 딸의 예쁜 고백이다.

東京教會夏期學校

동경교회에서는 심은택 전도사의 지도로 지난 八月十일로 同十五日까지 하가아동성경학교를 개최하였는데 학생이 二十五명부터 三十명까지 잘 나오므로 남녀교사 五人이 심한 피로를 무릅쓰고 열심으로 가르쳐서 많은 제자를 보았다. 파정애, 성경, 한글, 음악

(一面八段에서 계속) 사용하였던 청년들은 直時 그들의 母國語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에게는 強力한 민족精神이 躍動하고 있었으며 이제야 그들은 머리를 들고 활보하였고 그들의 감칠과 實情을 잘 파악하였었다. 또한 거기에 偉大한 覺醒이 있었음으로 三千萬全國民은 三十六年 間 日本帝國主義로 말미암아 抑壓되었던 獨立의精神을 어떠한 形勢로든지 그것을 表現하려고 熱中하였었다. 果然 韓國國民은 獨立을 원하였으며 獨立에 대하여 熱心하였고 또한 앞으로는 그것을 지켜나아가려고 애쓰고있었다.

는 그들의 提案外에는 어떠한 提案도 受諾하지않다는것은 明白한 사실이다. 우리들은 一九四八年五月에 總選舉가 實施되어 南韓에 政府가 樹立된 사실과 어떻게 韓國國際連合에 回付하였든지도 잘 알고있으며 國際連合委員會가 韓國의 統一政府를 樹立하기위하여 北韓을 總選舉에 參加시키기위한 것인 노력을 다하였다는것도 다 잘 아는 사실이다. 所謂은 選舉에 있어서는 壓倒的인 敗北을 認識하였음으로 選舉에 관한 모든 提案를 거절하고서 選舉에 參與하는 사람은 두서운 飛躍에 處한다고 脅迫하였었다. 여러번이 李承晩大統領이 政府가 樹立되어 李承晩大統領이 就任한 以來 共產軍의 侵略前까지의 二年동안에 南韓政府는 현著한 發展을 보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國家分劃의 惡前兆와 分割로 인하여 基因되는 政治的 經濟的인 社會的인 險害를 認識하였었다. 모는 分割의 殘蹟가 抹消되어 韓國의 統一이 達成되지않은 限 韓國의 平和와 幸福과 그리고 참다운 獨立은 있을수없는것이다.(계속)

수공들이오 오전九시반에 시작하여 공부를 마치고 낮에는 점심을 먹어보냈는데 「특히 감사한 일은 어린아이들이 한글을 열심히 배우고 재미있게

공부하는것이다 이것을 볼때에 그 부모의 정신도 맑아있고 민족의 정신이 아이들에게도 살아있는것을 알수있다고 심전 도사는 말하였다.



濟州海女

恐怖의 共產社會

KOREA TIMES 韓報

— 教育의 暗黒時代 —
元山에 있는 教育家 金秉仁氏
는 말하기를!
나는三八선을 넘어서 北韓
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속으로
온건히 갈망하고 있는 變革을
원했다.

그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北韓의 教育制度는 世界에서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劣等의
制度이다. 이制度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의 감각과 감정을
자유를 무시한 것이며 이러한
制度下에 있어서 모두 노예를
만드는 것이다.

— 前北韓政府 高官의 談話 —
北韓政府 前 高官의 談話는 그의
첫마디의 말이!
나는 지금 大韓民國에 있다는
것을 대단히 행복스럽다고 생
각하며 그는 요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아직도 外務省에 주로
지식인에 대한 幹部 肅清으로
말미암아 생긴 혼란을 생각

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친다.
全南 南北協定時에 많은 高官
들은 상대방의 행동과 언어를
살피기 위하여 오랫동안 서로서
정하였다. 참말로 각 高官들은
하나하나 조사하였던 것이다.
反소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
람이면 누구나 막론하고 除去
시켰다. 독선 관리를 위
하여 설치된 아파—트에는 그
곳에 있는 누구에게나 대해서
관도 일일이 사소한 것까지 조
사하는 정치보위국의 비밀모자
가 있었다.

— 疑獄의 生活 —
서울市에 거주하는 吳夫人談
서울의 公산치하의 九十日間
은 참으로 견딜수가 없었다
나의 어린아해까지도 피뢰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들을 때면 울
다가도 특 같이 군하였다. 누구
나 강제노동으로 인하여 골주
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돌아보
아주는 사람도 없다. 마침 하
로가 千年같이 보이며 남편은
公산군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가 있었다.
— 疑獄의 生活 —
서울市에 거주하는 吳夫人談
서울의 公산치하의 九十日間
은 참으로 견딜수가 없었다
나의 어린아해까지도 피뢰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들을 때면 울
다가도 특 같이 군하였다. 누구
나 강제노동으로 인하여 골주
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돌아보
아주는 사람도 없다. 마침 하
로가 千年같이 보이며 남편은
公산군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을 볼 때 나는 여섯자녀를 손
에 이끌고 돈도 없거니와 말
마져 없이 헤매었지요 나는 공
산도적들이 강탈하는 무서움과
죽음이 앞에서는 饑寒에 잠들
이루어지 못하였다.

— 公산主義者들의 眞理 —
前平壤音樂大學學生이었던 李
開泰君은 風刺적으로 말하되!
眞理는 北朝鮮에 있어져 버리
고 公산主義者들의 形式만이 선봉
로 남아 있을 뿐이다. 공산당
學生에게는 眞理를 탐구하는 것
은 致命的으로 밀요한다. 그리
나 北韓에서는 眞理를 탐구하
는 것을 포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정열까지도 없애 버리
게 한다. 어떠한 학과라 할지라
도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위한
道徳인 것이다. 그곳에는 教育의
核心은 公산, 公산主義인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어리석은 것이여
가엾은 運命이여
참다란 그 生涯에
永遠을 具現하려는 것이여
밤의 深淵으로 꺼지는
찬란한 虛榮이여
오늘 서러운 일 많을지라도
오늘 뜻깊지 않은 世上을 울지라도

나 北韓에서는 眞理를 탐구하
는 것을 포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정열까지도 없애 버리
게 한다. 어떠한 학과라 할지라
도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위한
道徳인 것이다. 그곳에는 教育의
核心은 公산, 公산主義인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 貿易稅 —
北韓商人들은 잘 알려져 있
는 법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에 貿易稅을 차지했으면 아니 되
며 每月二十日에는 稅金을 지
내지 않으면 아니 되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정부를
위하여 貸借去來를 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상업계에 합소
한 것은 자연히 상인들의 곤난
한 생활과 힘을 불게 하는 것이
다. 상업에 규모가 확대되면
필사록 그에 대한 부담은 더
욱 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十
萬圓(新貨幣壹千萬圓)을 소
유하는 사람이나 百萬長者의
企業家の 收入의 차이는 거
이 없는 것이다.

花火 (하나비) 姜泰吉

꽃이 피고 지듯이
미기바쁘게 落花生는 것이여
비록 瞬間의 榮華일망정 滿足하고
強烈하게 時代를 意識하는 것이여
사람의 六十平生도 그와 같음이여
살고 보면 億萬年도
눈 감자 할새에 지나겠음이여
보라 저기 花火 (하나비) 가 오른다

한글 교실

(제 20 시간)
張 曉

(6) 품이씨의 도움줄기
(用言의 補助語幹)

나는 먼저 품이씨의 받침을
말할 때 한 낱말(單語) 안에
서는 아무 뜻이 없이 „이 우
를 드러내어 그 위에 받침을
해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가령 말하면 „가지고” 로 적을
것을 아무 뜻이 없는 „이” 를
드러내어 „갖이고” 로 적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
나, 그것과는 달리 문법상으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령 „죽는다, 죽고, 죽지(死)”
하는 말의 줄기와 씨끝의 사
이에 „이” 가 끼어서 „죽인다,
죽이고, 죽이지” 로 되면 그
말은 아주 달라집니다. „죽고”
는 „그것이” 죽는다는 말이지만
„죽인다, 죽이고, 죽이지” 는 „그
것이” 남을, 다른 것을 죽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시고” 로
적지 않고 „죽이고” 로 „이” 를
밝히 드러내어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 와 같은 것
을 도움줄기(補助語幹) 라
합니다. 곧 줄기를 도와서 그
움직임의 범위를 달라지게 하
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몇
가지를 보아겠습니다.

하임도움줄기(使役補助語幹)
다른 것(남)에게 어찌함을
당하게 하는 것.
-아-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인다. (먹-아-다)
(아기가 젖을 먹는다.)
-기- 은행에 돈을 맡기자.
(은행은 돈을 맡는다.)
-리- 어머니가 아기를 올린다.
(아기가 온다.)
-우- 의사가 병을 낫운다.

(병이 낫는다.)
-구- 이를 때려다가 속구고
말았다.
(이가 솟았다.)
-히- 어머니가 아기를 자리에
앉혔다.
(아기가 앉는다.)

2. 입음도움줄기(被動補助語幹)
자기가 남의 어찌함을 당함.
-히- 콩이 매에게 잡혔다.
(매가 콩을 잡았다.)
-이- 콩에 팔이 섞여있다.
(콩에 팔을 섞었다.)
-기- 고양이와 개에게 쫓긴다.
(개가 고양이를 쫓는다.)
-리- 개에게 주인이 물리었다.
(개가 주인을 물었다.)

3. 때도움줄기(時間補助語幹)
그 움직임의 때를 나타냄.
-었- (위의 줄기의 끝 음소리
가 „이, 에, 이, 리, 니”
일때 쓰임)
밤을 먹었다. (먹-었-다)
글을 읽었다.
-았- (위의 줄기의 끝 음소리
가 „아, 아, 에, 때 쓰임)
나비를 잡았다.
날이 좋았다.
-겠- 날이 좋겠다. (좋-겠-다)
비가 오겠다.

위와 같이 „었, 았” 은 지난
적(過去)을 „겠” 은
울적(未來)을 나타냅니다.
4. 높임, 낮춤도움줄기
-(으)시- (받침 없는 줄기
아래서는 „으” 를 뺌)
어서 읽으시오
-(으)옵- 저는 부끄럽고...
-(으)오- 부끄럽으니...
-사옵- 있사옵고...
* „옵” 의 „이” 이 음소리
위에서 줄어든 것



남자는 악마

명애는 K형년의 전하는 말로 마리아의 기막히고도 장한 최후를 듣고 어머니 고씨와 밤 늦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다.

「놈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 세상에 그런 악마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악한 무리들을 그냥 두실까」

명애는 마음이 무척 곱고 세상에 나서 누계 욕 한마디 못해보았건만 하도 기막히는 일이라 자기가 친히 당했고 또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던 이모,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던 마리아의 당한 일과 죽은 일을 생각할때에 분과 독이 머리 끝까지 올라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또 마리아는 수많은 한복사가 잡혀간 일을 생각하고 또 정장로와 가까운 친구로 명애를 꼭 사랑하고 명애가 아저씨라고 부르던 조장로가 불상하게 잡혀간 일을 생각하고 또 명애가 이복에서 살때에 소련군에게 여러번 위기일발의 위험한 일을 당했다가 동생의 지혜와 용기로 겨우 욕을 면한 아슬아슬한 일을 생각하고

공산군과 소위 인민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뼈가 저리게 미운 생각을 품게 되었다.

명애의 신앙은 「미움」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죄라고 생각하였으나 공산주의와 공산군에게 대한 미움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죄를 미워하는거다」 명애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명애는 조장로가 잡혀간 일을 그 팔 명숙에게 듣고 치게 엘리제 분개하였다.

조장로는 한번 보안대원에게 붙려갔다 나왔다. 나와서는 잠을 못 잤다. 숨어있다가 잠간 집에 다니러 온 동안에 잡혀갔다. 잠간 온것을 누가

알라 그 아를 녀석이 연락해주어서 잡혀갔다 는 것이다. 그 아를 성수라는 젊은이는 세파트(개)를 길렀는데 처음에 인민군이 왔을때에 하루는 그 개를 잡아갔다 그때에 성수는 인민군을 붙잡고

「이 개는 내가 꼭 귀찮히는 것이요 우리집에 있지 못할 식구니 다른 개를 사드릴터이니 이 개만은 용서해주시오」 하면서 사정사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러던 성수가 조장로가 잡혀 갈때에는 퇴마루 끝에 기둥을 기대고 앉아서 「우리 아버지는 좀 가서야 돼 가서 좀 교육을 받으셔야 돼 아버지같은 이들은 속칭을 당 하여야 세상이 바루 돼」

이러구 지꺼리고 있었다고 한다 나중엔 알고본즉 성수자신이 자기 아버가 집에있는것을 연락해 주었다고 한다.

「세상에 악마는 과연 있다 그것은 빨갱이다 빨갱이는 무슨 악마다 그런 악마를 미워하는것은 죄가 아니다 하나 남께서도 그런 악마는 미워하실 것이다 악마는 결국 멸망할 것이나 한동안은 몹시 발동하고 발악할 것이다」 명애는 중얼거렸다.

고달픈 어머니는 잠이 들었으나 역시 불민중이 심한 명애는 종로서에 잡혀가서 그 불민중이 더 심해졌고 또 요새는 남편 태호의 행동이 달라져서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날째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기때문에 명애는 자기 어머니에게도 그런 말을 못하고 혼자서 고민을 하면서 잠을 못자던 차이라

이날은 마리아의 일로 더욱 몹시 흥분이되어 이웃집 담이 세번이나 울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새로 세시가 되도록 있다가 담담중이 나서 명애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별이 아를잡구만」 명애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고, 「이모는 저 위로 가셨는지 이렇게 중얼거렸다.

輸出向各種衣服地
高級洋和雜貨品
都散賣

松山洋品店

主鄭吉用

下關市竹崎町三ノ八九
電話(2)二八〇一番

古鐵賣買

阪神商會

主金延天
通名金村龍次

下關市東大坪一五一
電話(2)四七七九番

熊本商工會議所參與
國際纖維繁榮會副會長
纖維品都散賣

新原商店

主襄八巖
通名新原常正

熊本市河原町二
電話一〇六九番